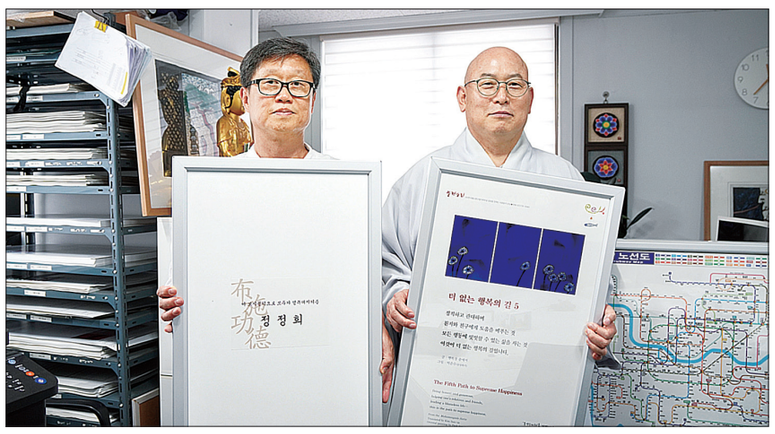
25돌 풍경소리, 지하철 게시판 포교 확대

코레일과 게시판 운영 재협약
창립 기념일인 9월 28일까지
경강선·분당선 등에 신규 설치
4000만원 목표로 모금 전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과 이용성 사무총장이 포교게시판을 소개하고 있다.

지하철 곳곳에 포교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법을 전해온 풍경소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603개 게시판 신규 설치를 목표로, 성금 모연에 나선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 스님)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하철 포교게시판 운영 확대 소식과 노후게시판 교체 현황,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풍경소리는 올해 창립 25주년 기념일인 9월 28일까지 신규 포교게시판 600여 개를 설치한다. 그간 게시판이 부착되지 못했던 구간이 다수 있었는데, 6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게시판 운영에 대한 재협약이 이뤄지면서 KTX 역사 등에 포교게시판을 확대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대표 목종 스님이 코레일 측과 3개월 간의 긴 협의 끝에 얻은 결과다.

재협약을 통한 추가 신설 구간은 경강선(판교-여주 11개 역), 분당선(왕십리-수원 15개 역), 수인선(수원-인천 19개 역), 동해선(부전-태화강 23개 역), KTX(39개 역)이다. 기존 부착 노선 내 신규 부착 역으로는 경의중앙선(야당-지평 21개 역), 경인선(남영-인천 20개 역), 일산선(2개 역), 과천안산선(5개 역), 경원선(외대앞-연천 12개 역), 경춘선(10개 역), 경부선(26개 역)이 있다. 이들 구간에 게시판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 900여 개 역, 3000개 게시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글귀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후 게시판 교체 불사'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 낡고 부서진 게시판이 늘어나면서 보수·보충 요구가 잇따르자 2022년부터 전국 지하철과 철도 게시판을 일제히 교체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00개 게시판 가운데 2200개 게시판을 교체했다. 나머지 200개 게시판 교체 작업도 9월 2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 게시판 설치와 노후 게시판 교체 관련 재원이 오롯이 후원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이에 풍경소리는 목표금액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게시판 뒷면에는 후원자의 이름과 발원 내용을 함께 새겨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는다.

목종 스님은 "넉넉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2개월에 한 번씩 게시판 교체에 도움을 주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분들과 그림을 보시해 준 작가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지금의 풍경소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풍경소리의 안정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 많은 동참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창립 25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풍경소리의 글 모음집'을 전국 교도소와 군도서관에 보급하는 법보시 캠페인이다. 모음집은 1999년부터 게시판을 통해 전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엮는 4권 분량의 책이다. 교정기관에 각 10세트, 군도서관에 5세트 이상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보시는 1구좌 3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보시자에게는 1~4권 중 한 권을 랜덤으로 증정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풍경소리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풍경소리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전법·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 의지를 다지는 도약의 장이 될 전망이다.

(풍경소리 : 1005-103-188374 우리은행, 02-736-5583)

나누며하나되기, 김영호 장관 통일 특강

7월 7일, 서울 관문사서
"평화통일에 입장 분명"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가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관문사에서 '제43대 김영호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사회부장 개문 스님과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형동 국회의원(천태종 중앙신도회장), 김보경 관문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관문사 1층에 마련된 남북교류 관련 사진전(개성 영통사 복원, 영통사 성지순례)을 둘러본 후 4층 옥불보전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특강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는 중이다.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이 결국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 관련 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여건도 마련돼 평화 합의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내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신사복지관서 '짜장공양'

7월 9일, 밑반찬 함께 나눔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이 7월 9일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짜장 소스와 짜장면을 나눴다.〈사진〉 올해 다섯 번째 진행한 '찾아가는 짜장공양' 사업의 일환이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집까지 배달해 주고 있다. 이날은 짜장 소스와 밑반찬을 함께 지원했으며,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밖에서 먹는 짜장면보다 더 담백하고 맛있다. 고맙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2회 '찾아가는 짜장공양'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다양한 국내외 자비나눔 사업 후원은 홈페이지(www.dreaminus.org) 및 전화(02-737-9595)로 동참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조계사 연꽃축제 개막

7월 6일, 500여 연꽃화분 경내 장엄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 도량에 연꽃으로 장엄된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조계사는 7월 6일 경내에서 '제10회 조계사 연꽃축제' 개막식을 봉행했다. '연꽃, 마음의 평안을 주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꽃축제는 올해로 10회차를 맞았다. 조계사 일주문 앞부터 앞마당까지 가득 찬 연꽃 화분은 500여 개. 불자는 물론, 시민과 외국인들은 도량을 가득 메운 연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판타지오, 제1회 드라마 극본 공모 시상

정희정 작가 '나쁘게 태어나서' 대상
수상작, 판타지오서 드라마 제작



동국대(총장 윤재웅)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대표이사 신영진)가 7월 8일 교내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1회 동국·판타지오 드라마 극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공모전에서는 정희정 작가의 '나쁘게 태어나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국대·판타지오 드라마 극본 공모전은 동국대 영상대학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과 ㈜판타지오가 협력해 문학·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수상작은 ㈜판타지오에서 드라마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국대는 드라마 극본 당선작의 2차 창작에 따른 수익 일부를 기부받기로 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 기업의 이익을 대학에 환원하는 미래 지향형 선순환 기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2026년에 다시 열릴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총 165명이 참가했으며 20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판타지오의 예심을 거쳐 30편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어 동국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정희정 작가의 '나쁘게 태어나서'가 대상을, 박선욱 작가의 '미라클 모닝'이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학과 예술분야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류 문화를 보존하고 한국 문화 산업이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비 손길 이어져

7월 8일, 안동불교사암연합회 · 서울노인복지센터 전달식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 불자들과 복지시설에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24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서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부회장 범종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지웅 스님이 참석해 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난치병 어린이들의 원활한 치료를 응원했다.

묘장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24년 동안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재단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매년 연합회 차원에서 난치병 어린이 기금 모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8일 안동 범림사 5층 전탑 앞에서 '난치병 어린이 지원 모금 절 수행의 밤'을 개최, 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기금을 모연했다. 이날 1000만원을 전달한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안동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로 자비정신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매년 협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4월 22일~5월 14일 '나눔해 보고싶어'를 주제로 어르신 모금단을 조직, 모연을 진행했다. 센터 직원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금한 971만원 중 10%인 97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센터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를 되새길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배우 임혁, 불자대상 상금 전액 '쾌척'

선업 스님에 1000만원 전달



불기 2568년(2024) 불자대상을 수상한 불자 배우 임혁 씨가 상금 전액을 연예인전법단 발전을 발원하며 포교기금으로 쾌척했다. 임혁 배우는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전법후원단 연예인분과회장을 맡고 있다.

임혁 배우는 7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에게 포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비롯해 연예인전법단장 우봉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고문 각운 스님(총무원 사업부장), 포교부장 남전 스님과 연예인전법단 소속 김국환·정동남·진미령·이현주·제임스킹 연예인, 이한규 연예인전법단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연예인전법단을 이끄는 회장님의 보시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회원들도 이 점을 마음에 새겨 전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혁 배우는 "불자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늘 응원과 격려해주는 전법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전법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위앙종, 관음특별법회…'대비참법' 수행

7월 2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서

위앙종이 7월 2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4회 관음특별법회'를 개최한다. 특별법회에서는 천수경 성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명대사의 대비참법(大悲懺法)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다.

대비참법의 본 명칭은 '천수천안대비참법'으로, 대승불교 대표 참회법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독송하는 형태가 아닌 불보살님께 꽃과 향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여러 죄업을 읊으며 스스로의 잘못과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수행법이다. 과거부터 지은 업에 의한 장애를 소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위앙종 관음법회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참비는 무료다. 대비참법에 앞서 만트라 세션(능엄주·약사주)과 선명상의 기초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선명상 기초'에서는 좌선에 유용한 택견 몸풀기 동작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10-5212-3844.

김내영 기자